

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제목 | The Shahnama of Shah Tahmasp: The Persian Book of Kings |
| 발행언어 | 영어 |
| 발행처 | Metropolitan Museum of Art |
| 발행일 | 2014. 4. 29. |
| 저자 | Abolqasem Ferdowsi Sheila Cnaby(번역자) |
| 출판국가 | 미국 |
| 페이지수 | 360 |
| ISBN 또는 ISSN | 978-0300194548 |

내용 요약

샤나메(shahnameh) 또는 샤나마(shahnama)는 왕들의 책이라는 뜻으로 서기 977년부터 1010년까지 이란 시인 페르도우시(Ferdowsi)가 쓴 방대한 페르시아어 서사시이다. 샤나메는 문학적인 중요성 외에도 거의 순수한 페르시아어로 쓰여 아랍어의 영향을 입은 페르시아어를 되살리는 구심점이 되었다.

이 방대한 작품은 페르시아인들에게 문학적인 걸작으로 여겨지며 이란의 역사, 문화적 가치와 고대의 신앙(조로아스터 교)을 반영한다. 이것은 이란의 건국에서 사산 왕조의 멸망까지를 기록했다. 즉, 피슈다디 왕조, 카야니 왕조, 이슈카니 왕조, 사산 왕조 등 4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.

처음의 2왕조는 신화 · 전설에 바탕을 두었고, 제3왕조는 사실(史實)에 전설이 혼합되었으며, 사산 왕조는 대체로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. 이 작품은 페르시아 문학사상 기념비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란 민족의 애국정신의 지주 역할을 하였다. 그 많은 영웅전, 사랑이야기, 비극 등에 얼룩진 드라마는 화가들의 민족적 열정을 고무하여 페르시아 미니어처의 가장 중요한 화제(畫題)가 됐다. 이 책은 323개의 아름다운 삽화를 포함하고 있으며, 2011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출판하여 절판된 것을 업그레이드하여 출판한 것으로서 삽화에 묘사된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독자가 서사시의 주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러스트레이션 “Who’s Who”를 포함하고 있다. 이러한 기능을 통해 독자가 이 매혹적인 걸작품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.